

## 신당·민주당 합당 호남 표심 '단일화'

### 총선 지역변동...공천 경쟁 거세질 듯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당 합당 통합에 전격 합의, 단일대오를 형성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됐던 18대 총선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뒤 분열과 대립을 반복했던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도 이번 통합을 계기로 지역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국회에서 '통합과 쇄신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양당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양당 통합은 지난 2003년 9월 열린 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의 신당과 '국민참여통합신당'으

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분당 된지 4년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당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통령 권력과 지방정부 권력을 이미 장악했고, 4월 총선에서 개헌선(200석)이 넘는 국회의석까지 장악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강력한 중도 개혁 통합정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통합정당의 당명을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으로, 정책노선은 경제성장과 소외계층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중도개혁주의'로 합의했다.

또,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통합정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공동대표 합체제 운영'을 당헌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정당의 최고위원회

회 등 각종 의결기구는 양당 대표가 합의해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공동대표 등록 문제도 손 대표만 통합정당의 대표로 선관위에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통합이 성사됨에 따라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가 진행됐던 18대 총선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 견제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경우, 수도권권의 '호남 표심'이 움직이면서 기존 지지층이 결합하는 등 총선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됐던 광주·전남 정치권도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으로 18대 총선에서의 공천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대 등록금 1,000만원 시대

### 대출금리 까지 올라 학부모 허리 휨다

대학 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10% 안팎으로 오를 것이 예상돼 가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의 일부 학과는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고된 데 이어 학자금 대출 금리마저 올라 이래저래 학부모만 골몰이 휘게 됐다.

11일 전국 100여개 대학의 학생 모임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포도대 14.2% ▲전남대 8.6% ▲호남대 6.9% ▲광주대·동신대 6.5% ▲연세대 8.9% ▲고려대 7.5% 등의 등록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연간 등록금이 의화계열은 1천600만원을 웃돈다. 7% 인상안을 놓고 협상 중인 조선대도 의화계열의 지난해 연간 등록금이 970여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1천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특히 국·공립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충북대 14.5%, 강릉대 12.9% 등 10%를 넘는 곳도 많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학부모들이 가세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대학 등록금 20% 인하'를 외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자금을 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은 점도 학부모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요인 중 하나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보다 1% 포인트 가량 상승한 연 7.65%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11일 현재 연 6.07~7.87%이며 3년 고정형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6.22~7.82%로 학자금대출 금리보다 최대 1.58%포인트, 1.43%포인트가 각각 낮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아! 승례문' 잿더미로 변한 대한민국 자존심



화마로 쓰러진 국보 1호 승례문이 11일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참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 화재 현장 사다리·라이터...放火 수사

### 경찰, 국과수에 감식 의뢰... CCTV선 용의자 못찾아

승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다리 2개와 라이터 2개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7·11면〉

이날 소방서,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 4개를 발견해 이 중 2개가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나머지 2개와 라이터 2개는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다리 2개와 라이터 2개가 승례문 2층 지붕에서 방화 용의자가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한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방화 용의자로 의심되는 50대 남성을 자신의 개인택시에 태웠다고 주장하는 택시기사 4명(49)씨를 불러 제보의 신빙성과 이 남성의 인상착의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인경비업무를 담당하는 KT텔레캅 측이 설치한 CCTV 4대와 인근 빌딩에 설치된 다른 CCTV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으나 방화 여부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만한 장면은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례문 CCTV 4대 중 1대는 후문 방향으로, 또 1대는 승례문 안쪽 방향으로, 나머지 2대는 정면 방향으로 각각 설치돼 있어 방화 용의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과 발화 지점

인 2층 누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한편 국보 1호인 승례문은 10일 오후 8시48분께 1층과 2층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 5시간만에 전소됐다.

이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60대의 소방차를 동원, 진화에 나섰으나 초기 진화 과정에서 안이한 대처를 하다 실패해 화재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유망직업 장원 55인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